



NEW SPIRIT

Mindanao, Philippines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Inho & Yeonji Park
1111 Copper Street
San Rafael Village
8000 Davao City, Philippines
ih.park@gmail.com
agnes.yjpark@gmail.com

2020년 1월

선교편지 제 127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카톨릭 국가인 이곳은 12월이 되면 모든 인사말이 시도 때도 없이 '메리 크리스마스'로 변합니다.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저녁마다 집 문을 두드리며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심지어 검문, 검색하는 경찰이나 군인들도 의미 심장한 미소로 '메리 크리스마스'임을 확인시킬 때마다, '팁'을 주며 성탄의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에게는 더 많은 기대를 하고, 더 집요하게 요구를 합니다.

이러한 까닭에 매년 12월이 되면 나도 모르게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밖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더 커진 눈과 활짝 핀 웃음으로 반갑게 맞이하는 교인들과 어린이들을 대할 때 마다 선물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머리 속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디고스 교회, 익핏 교회, 바카카 교회에 속한 식구들이 많아 짐에 따라 이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교인들과 어린이들이 기쁨과 기대 가운데 성탄절 축하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일년 내내 12월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디고스 예일 교회에서는 이번 성탄 축하 예배를 전교인이 함께하는 '찬양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설교 이후, 예수님의 탄생을 포함하여 주제별로 15 곡을 선별하여 전교인이 쉬지 않고 찬양하는 특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모두들 목이 쉴 정도로 힘차게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바카카 교회와 익핏 교회는 부엌 시설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하지만, 이번 성탄절에 교인들과 함께 따뜻한 음식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이후에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하는 친교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바카카 교회와 익핏 교회는 어린이들 위주로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어른들은 자연스럽게 주변에 머무는 형태였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어린이들이 준비한 특별 순서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준비한 선물과 음식을 나누며 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친교가 있었는데,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작은 교회가 웃음 소리로 날라가는 줄 알았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열악한 이곳을 온전히 비추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요 12:46)





지난 12월 1일, 아팔라야 마을 대표와 학교장, 그리고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쁨과 감격으로 '아팔라야 예일 교회'의 건축을 위한 착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민다나오 디고스 아팔라야 지역에, 마침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약 2년 가까이 마땅히 모일 공간이 없는 가운데, 아팔라야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교실에서 또는 야외 그늘진 곳에서 학원 사역을 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롭게 건축될 교회를 통하여 학생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향한 복음화의 꿈을 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새로 건축되는 '아팔라야 예일 교회'는 이미 5년 전에 건축한 '디고스 예일 교회' 와 거의 동일한 크기의 대지에 (615 m²/6,620 ft²/186 평) 예배당과 교실 2개, 그리고 목회자를 위한 사택이 갖춰지게 될 것입니다.

디고스 예일 교회를 건축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건축 전문 시공 업체가 아닌, 직접 작업자들을 고용하여 꼼꼼하게 챙기며 건축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몇몇 시공업체를 만나서 협의를 하고 견적을 받았으나, 터무니없는 건축 비용과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직접 시공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앞으로 약 6개월간 진행될 건축을 위하여, 현지 목회자 1명, 작업자 13명,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 모두 15명이 한 팀이 되어서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며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막중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1. 작업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2. 자연재해가 없도록, 3.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원이 잘 충족되도록, 4. 그리고 새롭게 건축될 '아팔라야 예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학 1:8)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57-10 226th St. 1F. Bayside, NY 11364

